

622만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물가상승 고려...기초연금·장애인연금 32만3180원으로 인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金的 월 급여(지급액)이 전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에 연동된 인상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은 이달부터 기존보다 5.1%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인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

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이달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 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휘발유값 상승세 유류세 인하폭 축소 영향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일주일 새 지역 휘발유 주유소 1당 평균 판매가격이 광주는 40원, 전남은 20원 가량 올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1당)은 광주 1550.62원·전남 1567.85원으로, 지난달 31일에 비해 각각 40.5원과 19.23원 올랐다.

광주 인상률(2.7%)은 서울(3.1%)과 대전(3.2%)에 이어 7대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일주일여 동안 1.2% 가격이 올랐다.

전남에 비해서는 광주 1.28원, 전남 0.78원 올랐다. 전남보다 평균 판매가가 내린 지역은 충북(-0.15원)이 유일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글로벌 경기 침체...삼성전자·LG전자 '어닝쇼크'

기업들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 개막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어닝 쇼크' (실적 충격)다.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비롯해 전 사업부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다.

같은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쇼크를 피하지 못했다. 작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1.2% 급감한 655억원이다.

실적 시즌마다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예상을 훨씬 밑도는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다른 기업의 기대치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최악의 반도체 업황에 SK하이닉스는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영업이익 4조3000억원 전년 동기비 69% ↓...LG전자 91.2% 급감 SK하이닉스 영업손실 7859억 추정...롯데케미칼 3분기 연속 적자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3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7859억원이다.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적자로 전환하면 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 150억원을 기록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된다.

글로벌 TV 판매 위축에 LG디스플레이도 4분기 영업손실 5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예상됐다.

LCD와 OLED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와 평균판매단가(ASP) 하락에 LG디스플레이는 작년 2분기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 LG디스플레이 영업손실 추정치는 1조7873억원에 이른다.

석유화학 시장 악화로 롯데케미칼도 3분기 연속 적자가 우려한 상황이다. 현재 영업손실 추정치는 4분기 887억원, 2022년 연간으로 4388억원이다.

롯데케미칼은 작년 11월 기업설명회에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으나, 업황 부진 지속과 나프타 가격 하락 등에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 업종도 시장 악화 영향으로 실적 둔화세가 눈에 띈다.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66.79% 줄어든 7865억원이다.

현대제철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854억원으로 전년 4분기 대비 75.99%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지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풀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다.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

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고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었기 때문이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풍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금리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했다가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풀리자 그해 11월 갑자기 수신 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지시해 정책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최상인데 정부의 입김이 작음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선물 준비하세요... 홈플러스 모델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홈플러스 제공>

광주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60% '깡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국 19만4090세대

광주지역에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10개 중 6개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이 많다는 얘기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026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

누는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광주는 63.2%로 울산(68.5%)에 이어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년 고용 증기 최대 120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시 2년간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수준과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됐다.

작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지원하고 2년 연속하면 480만원을 일

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다. 올해에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취업 애로 청년 9만명분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중기 3곳 중 2곳 "디지털 전환 준비 못해"

중기중앙회 300곳 조사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12월 14일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결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64.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19.0%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16.7%였다.

디지털 성숙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 수준이었다.

제조업이 41.4점으로 비제조업(39.2점)보다는 높고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높았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디지털 기술 장치·프로그램 확보(27.0%), 기업 문화 변화(23.7%),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23.0%),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 컨설팅(22.7%) 등 순으로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